

■ 주요 업무 사례 ■

키스톤 PE와 에코프라임 PE를 대리하여 동부건설 인수 자문

지평은 키스톤 PE와 에코프라임 PE가 공동 업무집행사원으로 설립한 PEF 3개사를 대리하여 2,000억 원 규모의 동부건설 인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. 기업재무안정 PEF를 통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를 성공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.

[관련 기사]

- [조선비즈 - 동부건설, 키스톤에코프라임으로 최대주주 변경\(2016. 10. 5.\)](#)

[담당 변호사]



윤영규 변호사



채희석 변호사



이은영 변호사



안중성 변호사